

民 权 正 論

1996년 3월 5일 등록 라-5947호 매월 15일 1회 발행 풍권 제38호
02-0611 서울·종로구 신문로 1가 58 한국정책연구회

通卷 38號

구입 납입 12.5
P 320.95
□ 433
등 ◎ 국회도서관

政府는 拉北人士 문제에
吾不關焉 할 것인가

金日成이 어찌 弔問 대상인가

金大中씨의 容共 言行, 그 不治의 痘

冷戰勢力を 削抉한다?

削抉해야 할 사람은 韓完相 당신이다

다큐멘터리 가상 金正日 回顧錄
白頭山 密營, 正日峰
모두 새빨간 거짓말

1996

韓國政策研究會

- 민족정론, 1996년 9월호, 한국정책연구회,
- 6.25때 남북인사 생사학인도 서둘러야 한다,
이기태(전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수석정책연구원)

男兒
거울할수없는

WHITE WHITENING
SEBUM CONTROL
CALM & PROTECT

제스스페이스 UV

9

(남북인사)

6·25 때 拉北人士 생사확인도 서둘러야 한다

李基奉

前 國際問題調査研究所 首席政策研究員

어정쩡한 1회성 문제제기

남북분단 반세기

북한측의 남한요인 및 일반 민간 인들에 대한 납치는 그 동안 하늘과 땅, 바다 등에서 입체적으로 꾸준히 진행됐다. 시기적으로는 6·25전쟁 기(3년간)에 가장 많이 북으로 끌려 가 억류 당했다. 당시 남북된 사람은 정치인·공무원·예술인·과학자·대학교수·법조인·각종 기능 보유

자 등이 절대 다수였다.

이와 관련 휴전 이듬해(1954년) 정부에서 유엔총회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전시에 남북된 사람이 8만4천 5백32명이고 행방불명자가 30만3천 2백12명으로 돼 있다. 그런데 행방 불명자 가운데는 피랍자도 있을 것 이므로 실제 남북자는 앞의 8만4천 여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정부와

는 별도로 행방불명자들 가운데 경력·지위 등으로 보아 남북될 만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엄격한 기준으로 가려내어 가족들(남한거주)의 신고를 받았는데 모두 7천34명이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명단을 북한적십자회에 통보, 생사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57년 11월1일 적십자국제위원회(ICRC)를 통해 3백37명의 생존자 명단을 전달해 왔다. 그것이 비록 간접적이지만 북한 적십자회와의 피랍자들에 관한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였다.

그후 38년, 한국정부와 적십자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우회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각급 남북회담 석상에서) 피랍자 수효와 생사확인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으나 그 때마다 북한측으로부터 묵살당했다.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고 회담 석상에서 마지못한 듯이 관심을 표명하고 넘어가는 극히 형식적인 수준의 어정쩡한 문제 제기로 일관해 왔으므로 북한측의 묵살이나 동문서답의 영뚱한 주장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기관에도 피랍자들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통일원과 대한적십자사 등은 53년 휴전 이후만 따질 때 피랍자가 4백20여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일원은 선원(대부분이 어부) 4백9명을 포함, KAL기와 해군함정 피랍사건 관련자를 합칠 때 4백41명이 아직도 북한에 억류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55년 서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남북된 大成號(대성호) 선원 10명을 비롯 최근까지 모두 4백29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이 중 해상 남북자가 3백97명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9명은 남북 뒤 사망했거나 간첩 교육을 받고 날파됐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81년 이후에도 87년 東進號(동진호) 선원 12명이 피랍된 것을 비롯, 크고 작은 남북 사건이 있었다. 대한적십자사는 94년 4월22일 대북 전통문을 통해 東進號 선원 등 강제 피랍자가 4백40여명에 이른다며 조속한 송환과 함께 최소한 이들

의 생사라도 확인하자는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측의 비인도적 행위를 비판했다.

그러나 그같은 대북 비판은 종전과 다름없이 1회성의 것이었고, 북한측은 이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납치공작 전통은 KGB에서 배운 것

가장 최근의 대형 남북 사건은 87년 1월 서해의 백령도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東進號 선장 金秀根(김수근·45세), 어로장 崔宗錫(최종석·41세) 등을 비롯, 선원 12명이 남북돼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개별적인 피랍의 대표적인 경우는 87년 7월 미국 MIT 공대 경영학 박사 과정에 수학 중 유럽을 여행하다가 피랍된 李宰煥(이재환)군을 비롯, 79년 4월 네덜란드에 연수 갔다가 피랍 당한 전 수도여고 교사 高相文(고상문)씨, 95년 6월 중국에서 피랍된 安承運(안승운) 목사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들을 남북 후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또는 지도자동지)을 흡모하여 주검의 땅 남반부를 탈출하여 공화국으로 의거 입북했다"고 떠들어댔다. 터무니 없는 모략선전 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앞의 세 사람의 경우 평소에 누구보다도 북한의 부자세습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혐오해 왔었다. 또한 후宰煥 군의 경우 피랍 당시 부친이 여당 국회의원이었다.

高相文교사는 남북 당한 후 정치범수용소(평양교외의 '승호리수용소')에 수감된 사실이 94년 7월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서 밝혀짐으로써 결코 그가 자진 입북하지 않았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高相文교사의 부인은 최근 자살로써 불행한 생애를 마감했다. 부인은 남편이 피랍된 후 17년 동안 스스로 죽음을 택할 지경으로 지쳤던 것이다. 安承運목사의 경우도 중국 공안당국에선 安목사가 피랍된 것으로 보고 북한의 납치공작에 관련된 사람(중국적 조선족)을 구금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安承運 목사가 오래 전부터 중국 땅에서 공화국(북한)을 해치기 위한 남조

선 정보기관의 하수인으로 복무해 왔으며 그는 더이상 조국을 배반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공화국으로 의거 입북했다"고 온갖 선전 매체를 동원, 떠들어 대는 한편 安목사가 그 선전을 시인하는 기자회견 연극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인륜적 납치극은 천통적인 것으로서 그것의 간교성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았다. 북한의 특정 인물들에 대한 남치극의 전통의 시원은, 1930년대 중반 金日成(김일성)이 중국공산당의 이른바 항일 빨치산으로 복무 당시 와 40년대 초 소련극동군 특수전 부대(제88특별여단)에서 복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金日成은 상전(중국공산당 정치 및 군사간부, 소련 KGB를 비롯한 소련극동군 정보기관 등)의 지령에 따라 자신이 직접 또는 부하 대원을 동원하여 수시로 동포(한국인)나 중국인을 납치하여 필요한 첨보를 획득하거나 주민들에 대한 모략공작(혼란조성)에 이용했었다.

그렇게 잔뼈가 굵은 金日成이고 보면 6·25전쟁 중에 수많은 남한 동포를 남북하고 그후에도 오늘에 이

르기까지 수시로 특정 인물들을 납북, 그들의 정치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행위는 결코 부자연스런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金日成의 안중에는 대한민국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미해방지역인 이른바 '공화국남반부(또는 미제의 식민지인 '남조선')'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남반부'는 金日成이 마음먹은 대로 장난질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金日成의 그같은 생각은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교시)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그 어떤 내정간섭이 아니라 민족의 내부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지원은 남조선에 대한 내정간섭도 아니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앞길을 가르쳐주며 그들의 의로운 혁명투쟁을 같은 민족으로서 도와주어야 할 승고한 민족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반동들이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할 데 대한 우리의 방침에 대하여 내정간섭이

요, 민중봉기를 선동하여 적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이요라고 하면서 험들은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비방입니다. …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수록한 김일성의 교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75년 10월).

金日成의 이같은 오만방자한 사고 방식은 물론 오늘날 고스란히 金正日(김정일)에게 승계 되었다.

피랍자의 몇 가지 유형

북한의 金日成 일파가 저지른 남한 동포 남북 죄행은 앞에서 본 것처럼 50년 6·25남침전쟁 초기에 가장 대규모적(총8만4천5백여명)으로 자행되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게 되자 한동안 우물쭈물하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북행길을 택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과 함께 사회적 지위가 널리 알려진 정치인·교육자·종교인·문화예술인·법조인·언론인·정부기관의 공무원·과학자 등 명사들은 피랍 경위에 의하여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평소에 은밀히 남북

공산당에 추파를 던져오던 용공분자들로서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의 연루자들이다.

이들은 서대문 교도소에서(옥증생활 및 개월만에) 북한 공산군의 서울 강점으로 해방되었으므로 바로 재세상을 만난 것이었다.

둘째 유형에 속하는 인물들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거부하고 평화적 협상에 의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상적인 남북협상파들이었다.

이들은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는데도 피란이나 피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공산당 천하에서도 적당히 협조하여 살아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세번째 유형은 공산당의 공간 협박과 회유에 끌려들어 자진 출두 형식으로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조한 사람들이다.

마지막 유형의 인물은 철두철미 도피하다가 체포된 지명수배 됐던 사람들이다. 이 마지막 유형에 속한 인사들은 약 1백명쯤 됐으며 그 가운데 몇몇 대표적인 인사를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金東元(김동원·제헌국회부의장), 金秉會(김병희·제헌국회의원), 崔奎東(최규동·전 서울대학 총장), 鄭寅普(정인보·사학자), 崔麟(최린·천도교 교령), 朴烈(박열·재일본 대한거류민단장), 方應謨(방응모·조선일보 사장), 李光洙(이광수·소설가), 金東煥(김동환·시인), 具滋玉(구자옥·기독교청년회 총무), 南宮赫(남궁혁·기독교연합회 총무), 安在鴻(안재홍·국회의원 전 미군정청 민정장관).

이 마지막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처음(6·25발발 직전)부터 북한 노동당 조직부와 내무성 정치보위국에서 처형 대상으로 점찍혀 있었던 대상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것은 6·25 당시 북으로 끌려간 남한의 각계 각종 요인들은 앞에서 예시한 유형들 중 어느 유형에 속해 있었건 간에 궁극적으로는 거의 전부가 북에서 반동·반혁명 등의 죄가 들씌워져 숙청(처형)당했다는 사실이다.

다만 숙청의 순서와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용·제한·말살' 등 통일전선기술의 3단계 원칙을 적용, 숙청의 순서와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피랍자들에 대한 최초의 처형은

50년 10월 16일 평양에서 자행됐다. 처형 대상은 물론 처음부터 없애버리기로 점찍었던 인사들이었다. 56년 북한 노동당에서 남북인사들(주로 국회의원 등 정계요인)로 조직한 이른바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총무 간사로 복무하다가 60년대 중반 월남 귀순한 趙徵(조철·일제시기 중국에서 광복운동 6·25 당시 피랍 인사들과 함께 월북)의 증언 '죽음의 세월'(서울 성봉각 71년 9월)에 따르면, 평양에서 최초로 북한 정치보위국원들의 총탄 세례에 희생된 사람은 李光洙·崔奎東 등이었다.

50년 8월 초 서울서 납북된 李光洙는 8월 10일 전 서울대총장 崔奎東과 함께 평양 고노골 민가에 수용되었으며, 그후 10월 초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하자, 서평양 제18인민학교로 끌려가 그 곳에 수용 중이던 납북된 일급 반동분자들인 崔麟(최린)·孫福泰(손진태)·白寬洙(백관수)·徐延禧(서연희)·玄相允(현상윤)·鄭寅普(정인보)·白鵬濟(백봉제)·白象圭(백상규)·金用茂(김용무)·金東元(김동원)·明濟世(명제세) 등과 합류하게 되었다.

李光洙와 崔奎東 등은 평양서 학살

평양 제18인민학교 현관 옆 하층 교실에 수용된 李光洙는 이때 이미 기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중태(폐결핵)에 빠져 있었다. 그 교실에는 鄭寅普, 崔奎東 등이 같이 수용돼 있었는데 鄭寅普도 신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崔奎東 역시 신장병으로 배가 뚱뚱하게 부어 기동이 부자유스러웠다.

북한 경비병은 기동이 어려운 중환자들의 머리맡에 깡통을 놓아두고 용변을 보게 했다. 삼복 더위에 악취는 코를 찔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환자들은 누운 채 그대로 배설을 했다.

10월 10일, 38도선을 넘어선 유엔군이 예성강 방어진을 돌파하여 계속 북진해 오자 평양 정치 보위국은 제18인민학교에 수감 중이던 일급 반동 납북인사들을 멀리 평북 江界(강계) 방향으로 다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몸이 불편한 鄭寅普도 무거운 다리를 끌고 崔奎東과 함께 묵묵히 떠났다. 학교에 남은 것은 李光洙, 崔奎

東 등 기동을 못하는 중환자들 뿐이었다.

10월 16일 밤, 차디찬 가을비가 줄기차게 퍼붓고 있었다. 밤이 깊어 지자 정치보위국 간부들은 몇 명의 무장 내무서원들을 거느리고 李光洙, 崔奎東 등 중환자들이 누워 있는 교실로 들어섰다. 그날 유엔군은 황해도 사리원을 돌파하여 평양으로 계속 북상 중이었다.

교실에 들어선 정치보위국 간부들과 내무서원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누워 있는 중환자들을 향해 마구 총탄을 갈겨댔다. 이날 밤 이 교실에서만도 李光洙, 崔奎東을 위시한 7·8명의 납북인사 중환자가 원통한 죽음을 당했다. 그 시체들은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끌어내어졌다.

崔奎東의 遺骸는 이튿날 평양지역의 그의 제자들이 남몰래 운반하여 평양 교외의 용산 공동묘지에 가매장했고, 10월 20일 유엔군이 평양을 수복하자 서울의 유가족(장남 崔性章(최성장·당시 외과의사, 후일 중동고등학교 이사장과 셋째 아들 崔性岳(최성악·당시 총무처 비서관))이 연락을 받고 유엔군 측의 협조를 얻어 평양으로

달려가 부친의 유해를 찾아 남으로 운구. 그의 선영 아래(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광봉산)에 안장하였다.

崔性章은 회고의 글('아버님 崔奎東을 생각한다' 월간 '북한' 72년 6월호)에서 당시(50년 11월초) 평양 교외 용산 공동묘지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학살체 3백여구가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한 구덩이에 수십구씩 가매장돼 있었다고 적고 있다.

한편 李光洙의 경우 당시 서울에는 그의 유해를 찾으려 곧바로 평양에 달려갈만한 유가족이 없었다. 그 밖에 평양서 회생된 납북 인사들의 유가족들도 비슷한 사정으로 유해를 거두지 못했다(그 유족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이 혹은 형제가 평양서 학살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 평양시 외곽인 삼석구역 원신리 공동묘지에는 李光洙의 묘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략적인 가짜 묘일 가능성이 많다.

북측은 오래 전부터 李光洙의 유가족들, 그중에서도 특히 셋째 아들 李榮根(이영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핵물리학 박사)이 아버지의 유해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1970년에 李光洙의 묘를 급조하고 91년 8월 李榮根을 평양에 초청, 성묘를 시킨 데서 가짜 묘의 가능성은 엿보이는 것이다. 요컨대 반도덕적·반인륜적 행위를 예삿일로 생각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특성이다.

93년부터 북한이 미국측에서 2백만 달러를 받고 넘겨준 2백여구의 미군유해도 정밀 감식결과 거의 대부분이 동물뼈로 드러나고 있는데서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북한 정권의 본질적 특성임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북한 정권은 6·25 당시 납북한 사람들 가운데 극악 반동·반혁명분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일찌감치 없애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기 보유한 재능과 특수경력, 명망(특히 정치인 및 문화예술인의 경우) 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걸쳐 대부분 적절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없애버리거나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 또는 산간 오지로 추방해 버렸다. 물론 그 사이에 노환이나 그밖의 질병으로 자연사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여기서 '적절한 죄명'이란 예컨대

중국에서 광복운동을 한 韓政(임정) 계열 정치인(남북협상파)들에게는 광복운동 시기에 중국 국민당정부의 정보기관 藍衣社(남의사)의 고용 스파이로 암약, 공산주의 혁명가들을 적발, 처단하는 데 앞장섰다고 조작하는 것이다.

한편 58년 북한의 이른바 '8월종 파사건'으로 북한 정권의 연안파(두령 金科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계열 숙청시에는 과거 중국에서 연안파 인물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혁명으로 몰려 완전 매장당한 피랍자들도 있었다. 趙素昂(조소양)·吳夏英(오하영)·尹培煥(윤기섭)·元世勳(원세훈)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53년 휴전과 함께 본격화된 朴憲永(박헌영)의 남로당 계열 숙청시에도 과거에 朴憲永이나 남로당과 그 계열 인물들과 가까이 했었다는 이유를 들어 함께 매장당한 피랍자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연안파, 남로당파 숙청시에 허구의 증인으로 이용당한 끝에 그들과 함께 숙청당한 피랍자들도 있었다. 金若水(김약수)·盧鎰煥(노일환)·李文源(이문원)·嚴恒煥(엄항

섭)·安在鴻(안재홍) 등이 그 대표적인 회생자들이다.

북한 정권이 남북인사들을 가장 알뜰하게 그리고 규모가 크게 이용한 것은, 피랍요인들을 협박 또는 회유하여 48인으로 56년 7월에 이른바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를 결성하여 몇 년 동안 대남 선전선동 공작(라디오 방송, 신문, 잡지 등에 북한 찬양과 통일에 관한 글 발표, 유엔 및 제3세계 정치지도자와 언론기관 등에 호소문 전달, 대한민국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사들에게 편지 발송 등)이었다. 그 48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상봉(辛相鳳) 백승일(白承日) 박윤원(朴允源) 이상경(李相慶) 김종원(金鍾元)
최동오(崔東旿) 오정방(吳正方) 명제세(明濟世) 구덕환(丘德煥) 김효석(金孝錫)
송호성(宋虎聲) 조소양(趙素昂) 조종승(趙鍾勝) 설민호(薛敏皓) 박철규(朴哲圭)
이만근(李萬根) 김병희(金秉會) 김경배(金庚培) 조현영(趙憲冰) 박승호(朴承皓)
권태희(權泰熙) 김의환(金義煥) 김약수(金若水) 안재홍(安在鴻) 최태규(崔泰圭)
신성균(申性均) 배중혁(裴重赫) 이구수(李求洙) 양재하(梁在夏) 김칠성(金七星)
장연송(張蓮松) 박보령(朴寶廉) 노일환

(盧鎰煥) 김현식(金憲植) 엄항섭(嚴恒煥)
오하영(吳夏英) 황윤호(黃潤鎬) 신석빈(辛錫斌) 박상규(白象圭) 박영래(朴榮來)
유기수(柳冀秀) 김장렬(金長烈) 원세훈(元世勳) 박열(朴烈) 이문원(李文原) 김옥주(金沃周) 강옥중(姜旭仲) 윤기섭(尹琪燮) — (출처=趙微-앞의 책 죽음의 세월)

金正日의 눈치보는 방식은 지양돼야

지금도 평양에는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의 간판이 걸려 있다. 그러나 결성 초기의 남북 인사 48인은 한 명도 생존해 있지 않으므로 노동당 중견 당원 몇 명이 배치돼 있으며,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산하 여러 개의 대남 선전선동 기구들 중의 하나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6·25 당시 40대 이상 중년의 나

이로 남북된 사람들은 북녘凍土(동토)에서 몇십년 동안 통한의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거의 전부가 타계 했고, 그 유해는 북한 정권에서 이용가치가 인정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원한의 산야에 버려져 있다.

정부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인륜 도덕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남북한 사람들(6·25 전시는 물론 휴전 후)의 생사 확인 및 송환, 나아가서는 사망자들의 유해 위치 확인 등의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부 당국은 과거의 고식적인 방법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金正日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된다거나 그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자세로는 이 문제 해결 역시 百年河清(백년하청)이 되고 말 것이다. ■